"강경화 장관, 위안부재단 해체 방침 전달"

日언론 보도…지난달 한일외교장관 회의서 고노 외상에 밝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초 한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한 화해·치유재단'을 연내에 해산할 방침을 일본측에 전달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8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한일관계 소식통을 인용해 강 장관이 지난달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때 화해·치유 재단의 연내 해산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에 대해 고노 외무상은 "재단 해산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 방일을 요청했고, 강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재단 해산 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후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할 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해산을 시사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문 대통령이 당시에도 아베 총리에게 재단의 연내 해산 방침에 대해 설명했다고 전했다.

화해·치유 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위안부 합의(2015년 12월)에 따라 2016년 7월 출범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약 98억7천만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다.

우리 정부는 작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한 끝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예산으로 충당키로 한 바 있다.

요미우리는 한일합의의 근간인 화해·치유 재단이 해산되면 양국 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납치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일 연대도 손상될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한국측에 생각을 바꿀 것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DJ-오부치 선언 20주년 日우익언론들 독도·위안부 억지 주장

김대중(DJ)-오부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 발표 20주년인 8일 일본 언론도 사설과 기사를 통해 양국간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1998년 10월 8일 도쿄에서 발표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를 중시하고 오부치 총리가 우리에게 사죄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요미우리, 산케이 등 일부는 이날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도발적인 주장을 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우리측이 합의를 파기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요미우리신문은 사설에서 "공동선언 이후 한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은 일본에 육박하며 반일(反日) 내셔널리즘이 강해졌다"며 "한국 정부는 역사문제를 다시 문제삼고,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를 둘러싼 영토문제에서도 독선적 주장을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히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독선적 주장'이라고 부정한 것이다.

산케이신문도 욱일기 문제와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움직임을 거론하며 "한국이 미래지향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사히신문은 공동선언 이후 양국 국민의 상호방문 증가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다고 지적한 뒤 "(양국간) 부정적 흐름을 끊는데 정치가 기능하고 있느냐. 오히려 양측 정치인의 언동이 문제의 출처가 되고 있다"고 양국 정치권을 싸잡아 비판했다. /연합뉴스

브라질 대선 1차 투표 극우 후보 1위 7일(현지시간) 치러진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사회자유당(PSL)의 자이르 보우소나루(63) 후보가 46.7%의 득표율로 1위를 차지했다. 좌파 노동자당(PT)의 페르난두 아다지(55) 후보 28.5%를 크게 앞질러 최종 당선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은 이날 빌라 밀리타르에서 투표를 마친 보우소나루가 지지자들 앞에서 엄지 손가락을 쳐든 모습. /연합뉴스

실종 인터폴 총재 모국 중국서 체포 확인…총재직 사임

중국 기율위 "뇌물 혐의 조사"

지난달 하순 이후 연락두절 상태인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Interpol)의 중국 출신 총재가 중국 반부패 당국에 전격적으로 체포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체포 사실이 공개된 직후 총재직에서 물러났다.

중국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7일(현지시간) 늦은 밤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폴의 멍훙웨이(64) 총재가 법을 위반해 반부패 당국인 국가감찰위원회의 감시와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고 AP와 AFP통신 등 외신이 전했다.

멍 총재는 지난달 25일 모국으로 출장을 간다고 나간 뒤 연락두절 상태였으며, 인터폴은 실종과 관련해 중국에 명확한 입장을 요구해왔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더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 조직은 중국의 공무원 수사와 관련해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력한 반부패 캠페인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 조직이 시 주석의 정적 제거에 활용되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중국 공안부는 8일 홈페이지를 통해 멍 총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국가감찰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공개했다.

자오커즈 공안부장은 이날 새벽 주요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안부 당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멍 총재의 비위혐의 사실을 통보하면서 공안부 조직이 일체의 동요 없이 당의 반부패 조사를 옹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당국의 발표 직후 인터폴은 멍 총재가 총재직에서 사임했다고 밝혔다. 인터폴은 다음 달 새 총재를 선출할 예정이며, 이때까지 한국인인 김종양 인터폴 집행위원회 부총재가 총재대행을 맡는다. 김 대행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찰청 기획조정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거쳐 2015년 인터폴 부총재에 당선됐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152〉 재상 원재

원재(元載, 713~777)의 자는 공보로 섬서성 봉상현 기산 출신이다. 당 대종 때 환관 어조은 제거에 공을 세웠으나 권력을 농단해 모반죄로 처형되었다. 당 왕조의 대표적 탐관오리로 평가된다.

한미한 집안 출신으로 현종이 도학에 빠져 천보 원년(742년) 도학에 밝은 사람으로 선발되었다. 빈주 신현위가 되었고 대리평사, 대리사로 승진했다. 이후 대리사직에 임명되었다. 755년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다. 난을 피해 강동으로 가 이희언의 부관이 되고 홍주자사를 겸하였다. 757년 숙종이 장안과 낙양을 회복하자 재정을 담당하는 호부 관리로 발탁되었다. 민첩하고 기발한 생각이 많아 황상의 마음에 들었다. 어사중승, 탁지낭중에 기용되었다. 당 조정은 계속된 전란으로 극도의 재정난에 봉착했다. 강회 지방의 세금에 전적으로 의지했다. 760년 전국적으로 기근이 발생해 물자가 폭등했다. 인육을 먹을 정도로 물자가 모자랐다. 761년 탁지·주전·염철 겸 강회 전등은사로 발탁돼 재정에 관한 일을 전담하였다. 762년 전란의 피해가 적은 강회 지방에 8년간 미납된 세금을 부과해 당의 재정이 한결 튼튼해졌다. 숙종의 실세 환관 이보국과 친밀해졌다. 그의 추천으로 동문서문하평장사, 탁지전운사에 임명되었다. 사실상 재상 반열에 오른 것이다.

황제 총애 권세 휘두르다 모반죄 처형

763년 숙종의 장남 이예가 이보국 등의 도움으로 대종으로 즉위했다. 이보국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황상께서는 궁안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조정사는 제가 다 처리하겠습니다"고 말할 정도로 황제는 안중에도 없었다. 결국 환관 정원진의 힘을 빌어 이보국을 제거했다. 그러나 정원진 역시 권력을 농단했다. 그는 대종의 측근으로 중서시랑, 동중서문하평장사, 집현전대학사 등을 역임하며 역사 편찬에도 참여하였다. 절강성 태주에서 원조의 병란이 일어났고 토번이 관중을 침략했다. 대종은 부득이 장안을 버리고 섬서성 섬주에 주둔한 환관 어조은 진영으로 도망쳤다. 이 사태로 어조은은 금군(禁軍)을 거느리고 장안에 들어와 새로운 실세로 자리매김했다. 나어린 양자 어령휘가 조정대신을 능멸했다. 원재는 황상의 뜻을 받들어 어조은의 측근인 주호와 황보은을 포섭해 궁궐에 들어온 어조은을 목매 죽였다. 그의 위세가 크게 높아졌다.

어조은 사후 탁지(度支) 업무를 재상 원재가 모두 관장하였다. 황상의 총애와 신임이 더욱 두터워진 것을 계기로 생각과 행동이 교만하고 방자해졌다. 스스로 "문무의 재능과 지략에 있어 예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자랑하며 권력을 휘둘렀다. 뇌물을 거두어들이고 사치가 도를 넘어섰다. 부인이 개원 연간 하서절도사를 역임한 왕충사의 딸이었는데 부부의 치부가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사후 황제의 명으로 재물을 조사했더니 토지 및 금은보화 뿐 아니라 후추가 800석 종유라는 진귀한 보석이 500냥이 발견되었다. 요즘 돈으로 수천억원에 달했다. 출장가는 관리를 잘 보살피라는 그의 편지가 지방관에게 도착하면 고급의 객사에 머물고 여러 날 융숭히 대접받았다. 그의 권세가 이와 같았다.

733년 토번이 감숙성 일대를 침략했다. 그는 대장군 곽자의로 하여금 농산, 석문에 쳐 들어오는 토번군을 막도록 하고 원주에 성을 쌓았다. 그의 처 왕씨와 아들 원백화, 원중무, 그의 동생 등이 다투어 뇌물을 받았다. 뇌물을 쓰지 않고는 관리가 될 수 없었다. 777년 대종이 그를 주살할 것을 결심하고 좌금오 대장군 오주와 상의했다. 황상이 오주에게 명해 원재와 그의 측근 왕진을 감옥에 가두었다. 이부상서 유안과 어사대부 이함 등이 그들을 국문해 죄를 자복받았다. 그에게 만연현에서 자살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그는 관원에게 말하기를 "바라컨대, 빨리 죽여 주셨으면 하오." 관원이 답하기를 "상공께서는 반드시 조금 더럽고 욕된 것을 겪어야 합니다." 이어 더러운 버선을 벗어 입을 틀어막아 살해하였다. 처 왕씨, 아들 원백화 원중무 원계능 모두 주살되었다. 황상이 그의 조부 묘를 파헤쳐서 관을 쪼개 시신을 내다 버리고 가묘를 헐고 신주를 불태우도록 하였다.

전원주택, 부지 매매

- 나주시 다도면 판촌리 산191-17 한전(KPS) 연수원 인근
- 임야 1423평, 보전관리지역
- 혁신도시 15분, 남평에서 10분
- 모든업종 개발가능
- 호수를 품은 최고의 전망
- 매매 – 상담후 결정
- 문의. 010-6834-7400